**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창세기 19 : 17-22, 30-33>**

**17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18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0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 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21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

**30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31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느니**

**32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33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누가복음 10 : 38-42>**

**38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41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들었던 2020년이었기에 얼른 떠나보냈으면 하는 마음일 수 있지만, 새해 새로운 걸음을 위해서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 공동체 주제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42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송구영신예배 때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거기에 덧붙여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 상황에 비추어보면서, 이 시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귀기울여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예수님 말씀을 2020년 우리 공동체 주제말씀으로 받으려 합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살 때가 많은 우리에게, 주님은 ‘많이’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하나’에서 시작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여행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 마을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고 합니다. 아마 손님 접대를 위한 음식 준비의 일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들어온 손님들 숫자가 많았다면 일의 부담은 그만큼 더 컸을 것입니다.

이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 관습을 고려할 때, 마리아의 이 모습은 아무렇지않게 여겨질 일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랍비의 발치는 그에게 배우는 학생의 자리였고, 전통적으로 그 자리는 남성들의 차지였습니다.

이야기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뭔가를 말하면서 전환을 맞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어떤 이는 이처럼 동생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마르다에게 공감을 표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전도시킨 마리아의 대담성에 박수를 보내겠지만, 이 마르다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다른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의 문제는 그녀가 열심히 봉사한다는 사실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은 그처럼 이웃 섬기는 일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이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그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그녀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야기하는 결과에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염려, 아마도 그것은 손님 접대에 혹여나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혹은 사회적 통념을 깨드린 동생의 행동이 미칠 파장에 대한 염려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여기 ‘근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periespato* (*페리에스파토*), 이 단어는 ‘이리 저리 여러 방향으로 잡아당겨지거나 끌려다니는 상태’, 즉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된(distracted) 마음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다는 말은, 신경 쓰는 여러 일들과 그로 인한 염려들로 인해, 그녀의 마음이 이리 저리 끌려다니며 분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마르다의 상황과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바람직하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일로 염려함에 따른 그 분산된 마음이 그녀의 참다운 환대의 실천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손님 앞에서 자기 동생을 난처하게 만들고, 그 가족간의 갈등에 손님이 개입하길 요청함으로써, 손님의 마음 또한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녀의 곤경을 생각해주지 않는다며 원망의 화살을 주님에게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염려와 근심이 그녀가 예수님과 진정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녀와 동생 사이, 그녀와 예수님 사이를 틀어지게 하며, 또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마저 훼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르다는 참다운 환대의 실천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손님에게 관심과 주의를 집중하는 것, 손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손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반응하는 것. 이것이 없다면 진정 ‘손님을 위한 섬김’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손님이 예수님이라면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신 것은 그저 음식을 드시기 위함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 여기 ‘이 좋은 편’을 어떤 성경은 ‘더 좋은 편’(what is better)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체코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마리아가 잘 선택했다” 정도로 깔끔하게 번역합니다.

마리아가 택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것. 당시로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그녀를 그 자리에 굳건히 붙잡아 둔 것은, 단순한 ‘철없음’이 아니라 간절한 ‘사모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사모한 그것을 그녀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빼앗겼고 한 사람은 차지했습니다. 무엇을요? 주님의 임재, 주님과 함께함, 주님께 집중된 마음…

마르다는 분주함 속에서 그 주님의 임재에서 소외되었고, 마리아는 사모함 속에서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주의 발치’란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간 자리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은 ‘몸으로 섬기는 일’보다 ‘귀로 말씀 듣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으로 섬기는 일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로 말씀 듣는 일을 분산된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듣지 않으면 잘 섬길 수 없고, 잘 섬기지 않으면 잘 들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순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주님이 손님으로 오시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주님을 향해 내 마음과 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우리에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 중엔 쓸 데 없는 일도 좀 있지만, 대부분은 고상한 의도로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내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뭔가 하나라도 더 해주기 원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도 뭔가 더 해드리기 원해서 바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저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 없다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까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귀한 분들이고, 귀한 마음이며, 또 귀한 섬김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 세상 수많은 ‘마르다들’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들 해내는 데 우선순위를 두면,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상황이 생기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대한 많이 해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다 하십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 이것은 ‘한 가지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시작해 모든 일을 하라, 그리하여 행해지는 모든 일이 진정 ‘주님의 일’이 되게 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런 저런 일들을 해야 하고, 그 일들은 중요하니,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 일들 다 끝날 때까지 주님 좀 기다려 주세요…*

실제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는 방식은 이런 말의 표현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일들이 다 중요하고 ‘거룩한’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그 일에 주님이 함께하실 때!

그런데 주님을 손님으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 삶의 자리,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 없이 행해지는 우리의 일들 속에, 과연 주님이 함께하실까요?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고, 또 어느 일에나 함께하실 수 있지만,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는 영혼에겐 주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누군가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 많은 걸 다 신경쓰며 산다고, 실제 그 일들을 잘 해내며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리는 일입니다. 먼저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는 일입니다.

이 한 가지 일이 주님이 예비하신 또 하나의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또 잘 하다보면 내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땅에 내가 어느덧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 손님으로 영접할 준비를 갖추고, 우리 마음을 그분께 향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손님이 실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줄 풍성한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는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임재 2020 –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 이것을 올해의 표어로 삼습니다.

이것은 해야 할 여러 일들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에 ‘주님의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 곁에 머물며 그분께 내 마음과 귀를 집중하는 일, 그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바로 그 일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원칙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새해, ‘많이’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를 붙들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체험하는 복된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한 해를 시작했지만, 까맣게 잊고 지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해가 끝나가는 시점에 다시 이 말씀을 떠올리니, 올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우리는 좋든 싫든 마리아가 되어야 했습니다. 마르다처럼 뭐라도 해야할 것 같은 분주함 속에 움직인다고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잠시 멈추고 내 옆에 그냥 앉아 있어라” 어쩌면 주님은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에 달하여 하나님은 그 지역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십니다. 암행어사처럼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 땅에 들어간 천사들은 거기서 의인 열 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작정된 심판의 순간을 앞두고 천사들은 롯에게 가족들을 이끌고 산으로 도망해 멸망함을 면하라 말합니다.

그러자 롯이 간청합니다. “저 산까지 가다가 중간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저 곳에 작은 성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도망하여 피하면 안 될까요?” 천사는 허락합니다. 그 부탁마저 들어줍니다. 원래 그 성읍도 멸할 계획이었지만 롯을 생각하여 그 성읍은 멸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 성읍의 이름은 소알이었습니다. 롯의 가족이 소알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은 가까스로 심판을 면했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그 후 롯은 다시 두려움 때문에 소알에서 나와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무슨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도망자 신세로 동네에 들어온 낯선 자들을 그 소알 사람들이 환대했을 리 없습니다. 거기서 롯은 비참함과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피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산 속 굴에서 아버지와 함께 머물며 두 딸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린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긴 글렀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동침하고 후손을 이어가자. 악한 소돔 사회 속에서 롯의 딸들이 그간 무엇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 그들은 계획한 일을 실행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롯은 그 벌어지는 상황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합니다. 아직도 깨어있지 못한 모습임을 봅니다.

이 롯의 비극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길, 인생의 second chance, 그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던 것일까요?

만약 롯이 처음에 천사들이 지시한 대로 산으로 도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그는 높은 산 위에 올라 두 딸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가는 모습을 온전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잘못된 일들의 결국을, 다시는 가선 안 되는 방향을, 그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며, 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향해 돌아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거기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그 산에 가면 끝장이라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한 때 잠시 거주한 적 있었던 저 소알이라면 그래도 좀 살 만 하지 않을까 싶어 그리로 가고자 했던 걸까요?

진정한 회개, 근본적인 마음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새로운 땅에 들어서면 다시 생존의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부각됩니다. 소알에 들어가자마자 롯은 다시 그곳에 비비고 들어가 살 일을 걱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저 멀리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의 연기가 피어 오르는 것을 어렴풋이 보면서도, 곧이어 시선이 분산되며 마음이 다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알이 롯의 가족을 대한 방식은 소돔이 천사들을 대했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은 더이상 견딜 수 없었고, 결국 두려움 속에 산으로 도피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용기 내어 산으로 가지 못한 결과로 이처럼 뒤에 쫓기듯 산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는 천사가 롯에게 지시한 바와 같이 그간 살아온 자리, 살아온 방식에서 멀리 떠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자리에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단 그 죄악과 멸망의 땅을 벗어나야 합니다. 두려워도 저 멀리 산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수 있는 그곳까지 마음 굳게 먹고 달려가야 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 그 새로운 지평으로부터 내가 떠나온 세계의 실체와 그것의 파국을 온전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힘이 생겨납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할지가 비로소 분명해집니다. 그러지 않고 내 경험에 의지해 그저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 한다면, 종내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세상의 흐름에 이리저리 떠밀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람들 사이로 보내시지만, 그 전에 먼저 그들을 당신 앞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산으로 가야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지평에서 모든 것을 새로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새롭게 준비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라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 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마음, 더 많이 하려는 마음,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과 뜻에 내 마음과 뜻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일로부터 우리 삶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요? 첫 단추를 잘 꿰야 그 다음 수고가 의미있는 일이 되듯이, 지금 이 일을 잘 할 때 우리가 앞으로 하는 일들이 진정 의미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1:4)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셔서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홀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5)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한번 달려가보시면 어떨까요? 소알을 너머 더 멀리, 천사가 지시한 그곳까지, 예수님의 발치, 그리고 예수님 마음 깊은 곳까지, 끝까지 한번 달려가보시면 어떨까요?

당황스럽고 힘들었던 2020년이 저물어갑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 초유의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불운을 말하고 또 불행을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것을. 우리 가까이로 오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올 한 해 주셨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주님의 발치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의 산에서 새롭게 준비되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